

친절한 말이 지친 마음을 치유한다.

The words of kindness are more healing to a drooping heart than balm or honey. (Sarah Fielding)

친절한 말이 향유나 꿀보다 더 지친 마음을 치유한다.

(사라 필딩)

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향유나 꿀보다 친절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. “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 사람의 일과 관계에 있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.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.

특히 친절한 말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무엇보다 소중한 치료제입니다. 용기를 주는 말,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.